

'21. 7. 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 하원, 테러단체 상징물 금지 법안 통과

- 6.25 독일 하원(Bundestag)은 유럽연합(EU)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이로 인해 터키의 쿠르드 노동자당(PKK)·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상징물도 금지된다고 발표

* 독일은 이전까지는 自國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의 상징물만 금지

미주

○ 美 대통령, 총기범죄 예방대책 마련 촉구

- 6.24 「바이든」美 대통령은 총기범죄가 前年 대비 30% 이상 급증함에 따라 △공격용 무기 소지 금지 △총기 제조사의 책임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再촉구

* 행정부에는 총기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판매하거나,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총기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토록 지시

○ 美, '자생적 단독형 테러'를 자국내 최대 테러위협으로 경고

- 美 국토안보부(DHS) 대테러조정관 「존 코헨」은 오늘날 자국이 직면한 가장 큰 테러위협은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 자생적으로 급진화된 개인(외로운 늑대)과 소규모 그룹의 테러 가능성이라고 경고

○ 캐나다, 미국 4개 극우집단 테러단체 추가

-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 근거한 극우주의 단체 Three Percenters(민병대), Aryan Strikeforce(인종차별주의 스킨헤드족), James Mason(新나치주의 단체), Proud Boys(자랑스런 아이들) 등 4개 조직을 테러단체로 추가 지정

* 캐나다는 신규 지정 4개 단체를 포함해 총 81개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·관리

아 · 태평양

- **印尼, 구호단체 자선 기부금 테러 자금으로 변질**
 - 6.24 印尼 경찰은 구호단체가 고아나 극빈자를 돕기 위해 모금중인 자선 기부금이 제마 이슬라미야(JI), ISIS, 알카에다 등의 테러단체 연계자들의 불순활동 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고 발표
 - * 제마 이슬라미야(JI)는 전국적으로 2만개 이상의 자선 기부금 박스 운영
- **국정원, 테러 및 범죄 예방 홍보 영상물 15개 공항 상영**
 - 6.28 국정원은 여름 휴가철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해외 출국자와 국내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테러와 국제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15개 공항에서 상영
 - * 총격 및 폭발물 테러 발생시 대피 및 대응요령 등 포함

아프리카

- **부르키나파소, 12~14세 소년병 테러 동원**
 - 6.25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4일 북동부 야그하州 솔한 마을에서 민간인 138명을 살해하고 시장 · 주택 등을 불태운 테러공격에 동원된 무장세력이 12~14세의 어린이들로 밝혀졌다고 발표
 - * 부르키나파소軍 간부는 알카에다 · ISIS와 연계된 무장세력들이 어린이들을 납치해 자살 폭탄 공격에 동원하고 있다고 진술
- **콩고민주공화국, 연쇄 폭탄 폭발로 통행금지 선포**
 - 6.27 콩고민주공화국 경찰당국은 키부州 베니市에서 이틀간 3차례 연쇄 폭탄 폭발로 사망자 1명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 조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일대 통행금지 선포
 - * '21.5월에도 베니市 모스크 두 곳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이슬람 성직자 2명 사망

아프가니스탄 카불 발생 차량 폭탄·총기 난사 복합 테러

- '19.7.1 오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市 소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차량 폭탄테러와 총격전이 발생, 45명 사망·116명 부상
 - 테러범은 폭탄 탑재 트럭을 국방부 인근 폭파 후, 주변 건물로 진입해 정부군 사살
 - 해당 지역은 국방부 外 정부 부처와 축구연맹 사무실 등 공공 기관 밀집지로, 특히 테러가 출근 시간대 발생해 사상자 다수 초래
- 테러 발생 직후,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배후를 자처, “국방부 물류시설 등을 공격했다”며 민간인이 아닌 軍을 노린 것임을 강조
- 이에, 「아슈라프 가니」 아프간 대통령은 관련 사태를 규탄하는 한편, “테러와 극단주의 근절 노력을 경주하겠다”며 강경 대응 다짐
- 한편, 전문가들은 관련 사건이 ‘美-탈레반 평화협상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근거로, 탈레반의 협상 주도권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탈레 반(Taliban)* >

* ‘이슬람 神學生’ 뜻의 아랍어 ‘Talib’과 이란어 복수형 접미사 ‘an’의 합성어로 ‘이슬람 神學生들’을 의미

- (목 표) 아프니스탄內 외세축출 및 이슬람 新政국가 수립('94.8 결성)
- (조직규모) 약 55,000~85,000명('20.5, UN), 100,000명('19.8,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물라 아쿤자다」, 제1부사령관 「시라주딘 하카니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하카니 네트워크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주요도시에서 정부청사·국제기구 등 대상 폭탄테러, 지방에서 연합군 및 아프간 군경 대상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
- (주요활동) ① '07.7 가즈니州에서 샘물교회 봉사단 2명 살해, 21명 42일간 억류
② '11.2 와르닥州에서 미군 헬기를 격추, 특수부대원 등 30명 사망 초래